

지역 매아리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고창군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석교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조정급 산정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을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원회에서는 석교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경계확정된 238필지 중 지적공부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된 106필지에 대해 산정된 조정급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급 산정액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 조정급을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년전 일제 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도의 경계불분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측량 기술로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이 토지 경계분명 해소와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키고, 지적제도의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동학마라톤대회 참가 신청·접수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혁명정신을 높이기 위한 마라톤대회가 열린다.

정읍시체육회와 정읍시육상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제124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가 내년 2월 25일 정읍종합경기장에서 열린다.

반국인운동으로 사랑받고 있는 마라톤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혁명고장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물론 혁명정신 계승 의지를 다지기 위한 취지다.

대회는 풀 마프, 10km, 5km 등 4개 종목 10개 세부종목으로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기념티셔츠와 2만원 상당의 정읍농산물이 제공되고, 완주자 전원에게 완주메달이 수여된다.

참가 신청은 이날 1일부터 받고 있다. 참가 희망자는 내년 1월 24일까지 정읍 동학마라톤(www.jdmarathon.kr, ☎063.537-4219, 팩스 063.537-4218)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마라톤이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과 농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전봉준장군 동상 건립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혁명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더욱 높이고 혁명정신을 기리며, 계승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선진적 교통환경 구축 기여

정읍시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107대 정기등록 1일 평균 67대 이용

정읍 IC 부근 하모동 일원에 조성된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가 시가지 교통안전 환경 조성과 운수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읍시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이하 공영 차고지)는 전북도 내 최초의 화물 자동차 차고지다.

하모동 607번지 일원에 면적 2만 9421㎡, 주차면 수 178면(화물 118면, 승용 60면)을 조성, 지난해 11월 준공됐다.

아외운동기구와 자동 판매기를 비롯 운전자들을 위한 수면실과 세면실, 휴게실 등도 갖추고 있으며 2시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PC업무 등 사무 처리도 가능하다.

공영 차고지는 정읍시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제73조에 따라 올해 9월 1일부터 유료화됐다.

시에 따르면 현재 107대가 정기등록하고 이용하는 등 1일 평균 67대가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영 차고지가 본격 운영되면서 교통안전 환경 조성과 화물 자동차 운수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읍시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는 하모동 607번지 일원에 면적 2만9421㎡, 주차면 수 178면(화물 118면, 승용 60면)을 조성, 지난해 11월 준공됐다.

관련해서는 "도로변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가 해소됨은 물론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선진적인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영 차고지는 영업용 화물차량 외는 이용할 수 없다.

이용 요금은 25톤 미만 화물차는 일 1천500원, 월 2만원, 연 21만6천원이다. 또 25톤 초과 화물차는 일 3천원, 월 3만원, 연 32만4천원이다.

정기권을 이용하고 싶은 영업용 화물 차주는 필요 시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관리사무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읍시 화물차 공영 차고지는 정읍 IC 부근에 자리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저렴한 요금으로 수면실 등의 휴게시설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화물차 운전자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부안읍, 맞춤형복지 차량·스마트워치 지원 이동상담 활성화 추진

부안군 부안읍 행정복지센터는 겨울철을 맞아 생활하기가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제도 무지기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과 난방 취약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을 내년 2월 말까지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안읍은 복지허브회의 중심인 맞춤형복지팀 활동을 하려고 지원받은 복지차량과 스마트워치는

안전하고 기동성 있는 이동상담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겨울철 전기, 가스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빈곤층과 각종 요금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가정 내 주 소독자뿐만 아니라 부소독자의 사망 실종 등으로 갑작스

런 위기에 처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긴급복지를 제공토록 전광판 및 게시대, 마을 경로당 등 홍보물을 비치해 복지서비스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조용환 부안읍장은 "힘든 이웃들을 부안경찰서, 병원, 보건소 복지관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다각적으로 발굴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발히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 협업단체와 약자 인권보호 간담회 열어

고창경찰서(서장 박헌수) 청문감사실은 경찰발전위원회와 사회적 약자 및 주민의 인권보호에 대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국민의 높아진 인권의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인권감수성을

갖춰 사회적 약자와 주민을 보호하는 진정한 인권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의견을 모았다.

청문감사관(송태석)은 "협업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인권보호 강화에 힘을 쏟아 고창에서는 인권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헌수 서장은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로 그 누구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이를 위해 경찰이 주민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오복마실축제 '도전!! 자랑스러운 지역축제 상' 수상

제4회 전국 자치단체·축제 시상식에서 부안오복마실축제가 2017년 도전!! 자랑스러운 지역축제 상을 수상했다.

2017 자치단체·축제 시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도전한국인 운동협회와 도전한국인운동본부 주관하는 자랑스런 지역축제 상은 국내에서 한 해 동안 열린 2000여 개의 축제 중 창의성과 도전성, 경제기여도 참여도, 주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업적이 뛰어난 8개 지역축제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이와 세상 벗남매야, 복 받으러 마실가세! 라는 주제로 매년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간 열리는 부안오복마실축제에는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부안에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치러지면서 소 도읍 거대한 축제로 자리매김해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이번에 자랑스러운 지역축제 상 수상과 함께 부안오복마실축제가 올해는 전국 10대 대표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모양성제 추진결과 보고회 개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제4회 고창모양성제가 성료됨에 따라 지난 28일 이길수 고창군 부군수 주재로 간부 공무원 등이 모인 가운데 추진결과 보고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이번 모양성제의 전반적인 자체평가를 통해 발전점을 서로 공유하고 개선점 도출을 통한 상호의견교환을 위해 개최됐다.

모양성제는 기념식을 폐지하여 각종 의전행사를 지양하고 모양성제 대표 프로그램인 답성놀이와 강강술래의 비중을 높여 주민참여도를 높인 점과, 축성참여고를 자치단체간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관광박람회 등 다

중발달지역 사전 홍보, 고창의 대표 먹거리인 풍천장어와 한우 할인판매점 운영, 떡거리 장터의 음식가격규제, 관광객 편의시설인 쉼터, 화장실, 물품보관소 확충, 각종 체험프로그램

의 동선 연계로 행사장 배치 효율화, 세계 여러나라의 음식문화 체험 등이 비교적 발전 점으로 논의됐다.

이와 함께 축제 전담 추진인력팀 구성과 실행계획수립 일정 확정시기를 앞당겨야 할 필요성과, 행사장 운영에 있어서 상설공연 운영시간 조정, 체험 프로그램 안내판 설치, 행사장소 협소 등 각종 프로그램 별로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길수 부군수는 제4회 모양성제 개최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자에 수고의 말을 전하고 "보고회를 통해 돌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고창군과 (사)모양성보존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내년 모양성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공공비축미·시장 격리곡 수매 순항

이달 2일부터 시작된 공공비축미와 시장 격리곡 수매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수매는 내달 초까지 이어지고, 물량은 지난해 1만4930톤보다 5.5% 늘어난 1만5151톤으로 김제, 익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매입 품종은 신동진과 새누리 2개 품종으로, 수매는 읍면동 지정된 수매장소에서 진행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벼 매입대

금은 매입할 때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매입 가격 확정 후 사후정산했으나 올해부터는 우선지급금제도를 폐지하고 매입이 확정 후 일괄 지급한다.

김 시장은 "어려운 여건의 쌀 재배 조건에서도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계신 모든 농업인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쌀값 안정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A large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It features a central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several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Contact information for Gangsanmyeongju is provided at the bottom.